

대한민국조경대상의 정체성 해석

홍윤순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A Study on the Identity of the Korean Landscape Architectural Award

Hong, Youn-Soo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the identity of the landscape architectural award, which is the highest authority award system in landscape architecture;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between the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 public sector, which deals with infrastructure is significantly requested nowadays. The identity characteristic of a detailed concept which configures the sameness in the shape of inner self-cognition and individuality as external and correlative cognition are utilized as the research methodology, and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Korean Landscape Architectural Award holds an internal value as the only award in landscape architecture that is granted municipalities and public agencies. However, when it is compared with several correlated award systems, the vulnerable sides such as short origin and partly limping in terms of sustainability, the possibilities of losing the interest in the public sector due to management's reform program and insufficient participants and responses regarding social authority have been found.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today's paradigm that aims for green cities, the aspect that shares the large portion with the values set by detailed categories of city planning that enforces metropolis awards is also in the spotlight.

Hence, the landscape architectural award should construct specialization and development strategies by strengthening the superiority compared with the city award in the field of city planning. In other words, the Ministry of Land, not limited to the systematic cooperation with various administrative areas will be strengthened and it will communicate with the aspect that reinforces characters as an academic and practical area that covers various districts and disciplines. Thus, the identity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landscape architectural award's competitive reinforcement as a detailed characteristic variously combined, and it requires huge interest and discussions regarding internal and external landscape architecture areas and the democratic public discussion process.

Key Words: Internal Self-Cognition, Sameness, External Correlative-Cognition, Individuality, Award System

국문초록

본 연구는 도시의 기반환경을 다루는 조경분야와 공공영역 간 협력체계의 구축이 크게 요청되는 오늘날, 조경계의

Corresponding author: Youn-Soon Ho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Anseong 456-749, Korea, Tel.: +82-31-670-5216, E-mail: yshong@hknu.ac.kr

최고권위 시상제도인 조경대상의 정체성을 고찰한 내용이다. 연구방법론으로 내적 자기인식으로서의 동일성과 외적·상관적 인식으로서의 개별성으로 구성되는 정체성의 세부특성을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경대상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시상하는 조경분야의 유일한 상으로서의 내적 가치를 보유한다. 그러나 관련되는 여러 시상제도와 비교할 때 지속성 측면에서의 짧은 연원과 부분적으로 파행을 겪은 점, 제도운용방식의 개편으로 공공영역에 대한 관심이 반감될 가능성이 야기되고 있는 점, 사회적 권위와 부합되는 정도의 참여와 호응도를 형성하지 못하는 점의 취약한 측면들이 발견되었다. 또한 오늘날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패러다임에 의해 도시계획분야가 시행하고 있는 도시대상의 세부분야가 상정하고 있는 가치들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측면 역시 노정된다.

이에 조경대상은 도시계획분야의 도시대상과 비교한 수월성을 더욱 강화하면서 특화와 발전전략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국토해양부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행정영역과의 공조체계의 강화가 바로 그것으로, 이는 다양한 영역과 분야를 포괄하는 학문과 실무분야로서의 성격을 더욱 공고히 하는 측면과도 상통될 것이다. 이렇듯 다양하게 복합되어 있는 세부특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조경대상의 경쟁력 강화방안과 직결되는 것으로, 조경분야 내·외부의 폭넓은 관심과 논의, 그리고 민주적인 공론화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주제어: 내적 자기인식, 동일성, 외적·상관적 인식, 개별성, 시상제도

I. 서론

조경은 경관이라는 공적 자산을 실천적으로 다루는 사회적 행위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의 방식으로 지역의 생활환경이 기안되는 오늘날, 도시의 기반환경을 다루는 조경분야와 공공영역 간 협력체계의 구축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조경분야 내 시상제도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작업의 현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큰 의미를 보유한다. 즉, 조경분야의 시상제도는 관련사업의 성과를 격려하고 성공사례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제(Local Agenda)21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천전략인 동시에, 분야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경분야 내 시상제도와 관련된 현실상황과 공과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행해져 온 조경관련 시상제도 중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조경대상(이하 조경대상으로 지칭)의 위상을 다각도로 조감함으로써 제도의 보완 및 발전에 단초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과정과 방법을 채택한다. 첫 번째, 해석방법론 구축을 위한 이론고찰의 단계에서 정체성 개념을 점검한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되겠지만, 해당주체의 내재적 속성과 외재적 관계성 모두에 집중하는 이 개념은 총체적 상황이해를 위한 유용한 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물리적 환경의 창출과 관련된 분야에서 공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시상제도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조경대상이 상기 국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파악하도록 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도출한 방법론을 통해 조경대상의 세부국면을 본격적으로 해석토록 한다. 즉, 창안되어 현재까지 추진된 전개과정상의 지속성, 분야성격과의 동일화 측면,

그리고 유사 시상제도와와의 경쟁 및 보완관계를 통해 파악되는 특이성과 우월성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 결론부분에서는 이상 정체성 분석결과를 통해 드러난 조경대상의 특성이 조경분야에 제공하는 의미와 시사점을 요약하면서 향후 개선방안을 추론토록 한다. 본 연구과정은 관련문헌과 인터넷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토록 한다. 이러한 연구태도는 조경분야의 국내도입 40주년을 앞둔 현실¹⁾에서 분야의 대 사회적 강화에 실질적 기여를 겨냥한 것이다.

II. 정체성 개념과 연구방법론

1. 정체성과 세부개념

정체성으로 번역되는 아이덴티티(identity)의 어원은 라틴어인 'identitas' 또는 'identicus'로, item 즉 동일하다는 뜻에 뿌리를 두고 있다(계기석 등, 2001). 인간심리학분야에 기초한 정체성 개념에 대해 정신분석학자 에릭슨(E.H. Erickson)은 '자아 내부에 있는 지속적 동일성(a persistent sameness within oneself)'과 '다른 사람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몇 가지 속성(a persistent sharing of some kind of characteristic with others)'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자아의 '자기인식'과 '타자인식' 두 측면의 인식이 결합된 정체성 개념은 다른 사물과 구별되는 '배타적 공유성'과, 다른 비슷한 것과 연계되는 '상관적 공유성' 모두를 포괄한다(황기원, 1995).

이렇듯 정체성의 개념은 '동일성(sameness)'과 '개별성(individuality)'의 두 국면을 형성한다(Relph, 1976). 이중 선행하는 세부개념으로서의 동일성은 '~는 ~답다'라고 하는 경우처럼 '~

와 같은 정체성(identity with~)'의 용례로 사용되며, '지속성'과 '동일화'의 개념으로 세분된다(황기원, 2009). 지속성의 개념은 현재의 자아가 과거 및 미래의 자아와 동일하여야 그 존재가 인정되듯 시간의 추이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일정한 범위 내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지칭하는 반면, '동일화'는 무의식 혹은 반 의식적으로 자기를 자기와 관계없는 자기 이외의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을 가리킨다. 즉, 특정 집단 속의 개인이 그가 속한 집단과 동일하다는 감정을 느끼고 주위의 사람들과 환경에 대해 잘 어울린다는 귀속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그것으로, 이렇듯 자신과 투입하려는 대상이 서로 잘 어울린다는 정합(整合)의 관계는 대상과 자신 사이에 일종의 감정교류 내지 감정이입(empathy)의 현상을 유발한다(황기원, 1995).

한편, '개별성'은 '~의 정체성(identity of~)'이라는 주체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다른 객체와 다르게 구별되는 특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특이성'과 다를 뿐 아니라 더 낫다는 '수월성'으로 구분된다. 인간은 환경이라는 전체상황을 인식하기 위해 이를 부분상황으로 개체화(individualization)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서 거론되는 특이성 개념은 정체성 판단의 객체가 다른 개체와 공유하는 공통적 속성(essential attribute) 보다는 객체 내에 고유하게 존재하는 우유적(偶有的) 속성(accidental attribute)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다른 개체로부터 식별되는 개체특성을 '개성'으로 일컫는 것과 상통된다. 이에 비해 수월성은 다른 속성으로서의 특이성을 상회하는 우월한 특성(excellency)에 주목하는 개념으로 다른 개체와 질적, 양적으로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는 특성을 지칭한다. 수월성은 '공통요소를 비교한 우월성'과 '고유요소에 근거한 우월성'으로 세분될 수 있다.

개체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참된 본디의 성향을 의미하는 정체성 개념(Proshansky et al., 1983)은 심리학분야로부터 다양한 분야로 확대·적용되었다. 즉, 기업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C.I(Corporate Identity)와 도시수준의 정체성을 논할 때의 C.I(City Identity)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이 정체성 개념은 조경분야의 연구사례를 통해서도 살필 수 있듯, 다양한 적용가능성을 보여준다²⁾. 이에 정체성의 본질적 개념들과 견주면서 조경대상의 해석방법론을 추론토록 한다.

2. 조경대상의 정체성 해석안목

특정주체에 대한 정체성 이해의 첫 단추는 해당주체 본연에 대한 내적 고찰로부터 시작된다. 동일성으로 명명되는 이 내적 자기인식과정 중 '지속성'은 해당주체가 보유한 특성이 여하히 연속되는가에 대한 안목이다. 따라서 조경대상의 정체성과 관련하여서는 제도가 만들어진 당시의 가치기준으로부터 현재까지 변화에 대한 통시적 고찰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성의 점검항목으로 태동 당시의 가치기준과 변화의 진폭, 시행기간, 시행횟수 등이 감안될 수 있어 보인다. 반면, 동일성의 또 다른 세부기준이며, 해당주체 본질과의 교감정도를 지칭하는 '동일화'의 측면은 분야 내 최고권위의 시상제도와외의 부합측면에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며, 호응 및 참여정도의 측정 등을 통해 그 진정성이 점검될 수 있어 보인다.

한편, 정체성 개념은 해당주체의 내부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관계성 측면에도 관심을 촉구한다. 즉, 오늘날 조경대상의 현실상황을 인식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체성의 개념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조경분야 내부관점에서의 고찰뿐만 아니라, 관련분야의 시상제도에 대한 비교론적 고찰이 요구된다. 외부와의 관계에 주목하여 정체성을 판단하는 개별성은 역사적 변화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시점에서 획득된 '현재성'인 까닭에, 경쟁구도의 시상제도와외의 비교를 통해 유추되어야 할 것인 바, 목표시장 및 시상관점의 비교를 통한 특이성 국면의 해석과 공동요소 또는 고유요소에 근거한 수월성의 도출을 모색토록 한다. 이상의 이론연구를 통해 살펴본 정체성의 세부개념과 본 대상주체의 해석기준, 점검항목 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III. 조경대상과 관련 시상제도

1. 건설분야의 시상제도와 운영시스템

특정 사안의 우수성을 공인하면서 상장이나 상품, 상금 따위를 포상하는 시상제도의 기원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상을 주고받는 주체와 객체, 이들을 매개하는 세부시상분야의 삼각구도를 통해 성립되는 점만은 분명할 것이다. 이중 조경이 속한 건설관련 시상제도의 유형은 물리적 환

표 1. 정체성의 세부내용과 조경대상의 해석방법론

단계	정체성의 세부개념		조경대상에 대한 정체성 해석안목	세부 점검항목
1단계	내적 자기인식으로서의 동일성(Sameness)	지속성	통시적 변화 고찰	태동 당시의 가치기준과 변화의 진폭, 시행기간, 시행횟수
		동일화	조경분야 내 최고권위 시상제도와외의 부합 정도	호응 및 참여 정도의 검증
2단계	타자와의 상관적 인식으로서의 개별성(Individuality)	특이성	조경분야 내외의 다른 시상제도와 비교한 개성	목표대상 및 시상관점 비교
		수월성	다른 경쟁구도의 시상제도와 비교한 우월성	공동요소 및 고유요소에 근거한 우월성
3단계	종합		동일성과 개별성 도출을 통한 조경대상의 위상 재점검, 발전적 시사점 도출	

경을 다루는 분야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즉, 환경구축의 전 단계인 기획·계획·설계단계, 시행단계가 되는 시공 및 감리단계, 이후의 유지·관리·평가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기획단계의 시상은 전무하며, 계획·설계단계에서의 시상 역시 현상설계(competition) 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므로, 본 연구와 관련된 시상제도는 이후의 두 단계로 집중된다³⁾.

이러한 측면에서 시상제도가 주목하는 관점은 물리적으로 우수한 환경을 형성한 시공단계 위주의 '만들기' 영역과 이후 유지·관리의 충실도 등에 관심을 두는 '가꾸기' 영역으로 대별된다((재)경기녹지재단, 2006). 전자가 우수환경조성사례라는 하드웨어에 방점을 두는 반면, 후자는 행위와 태도와 같은 소프트웨어에 주목한다. 지역, 도시로부터 단지 및 소규모 환경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건설분야의 범위 중 가꾸기 측면의 포상은 대개 소규모 환경에서 시행되는 경향이 있어 왔다. 또한 공공이 주체가 되어 시상을 하더라도 공공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영역을 포상하는 경우도 흔히 있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 더하여 만들기와 가꾸기의 양자를 종합하거나 가능한 한 주체에 주목하는 시상제도 역시 발견되는 바, 본 연구가 주목하는 조경대상은 이 경우에 해당한다.

2. 조경대상과 유사 시상제도

조경분야에 있어 공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상제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범위의 것으로 구분된다. 이중 대통령상을 보유함에 따라 분야 내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인정되는 조경대상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전국을 포괄하는 상으로서의 성격을 보유한다. 이렇듯 전국을 포괄하는 조경분야 내 시상제도에는 (사)환경계획조정협회의 자연환경대상과 (사)한국조경사회의 녹색공간대상 등도 있다. 환경부가 후원하는 자연환경대상은 2001년 생태녹화대상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으나, 2009년의 시상인 9회 때부터 명칭이 바뀐 것이다. 이 상은 그 사용명칭에서 드러나듯 시공 완료된 환경·친화적 작품을 대상으

로 시행자·시공자·설계사 모두를 시상하여 왔으나((사)환경계획조정협회, 2010), 2011년부터는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과 관련된 국비지원 분야, 일반분야, 시민참여분야를 구분해 심사할 예정이다((사)환경계획조정협회, 2011). 반면, (사)한국조경사회의 주최 및 주관 하에 국토해양부가 후원하여 2010년 처음 시작된 녹색공간대상은 '환경·생태·문화적으로 우수한 조경설계와 시공사례를 발굴하여 녹색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본보기로 삼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사)한국조경사회, 2010). 이들 시상제도는 모두 우수조성사례로서의 단위 환경에 주목하는 까닭에 조경대상과는 꽤를 달리한다.

아울러 조경분야 내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범위로 하는 시상제도도 있어왔다. 전자의 것으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에서의 시상제도가, 후자의 것으로는 안산시, 안동시의 사례 등을 꼽을 수 있다⁴⁾. 이들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범위의 조경관련 시상제도 역시 시공이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많은 경우 가꾸기 활동에 비중을 둔 점, 시대적 화두인 녹색 및 생태조경분야에 더욱 주목한다는 점에서 공통적 속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조경관련행정에 대한 노력을 포상하는 조경대상의 성격은 분야 내 여타 시상제도와 확연히 차별화된다.

조경분야를 넘어 시상제도의 안목을 확대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점이 발견된다. 즉, 건축분야에도 유사한 명칭의 대한민국건축대상이 존재하지만, 이는 조성된 우수환경사례에 대한 포상으로서의 성격을 보여준다. 따라서 조경대상처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평가하는 시상제도로는 도시계획분야의 도시대상 정도만이 주목된다⁵⁾. 즉, 도시대상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특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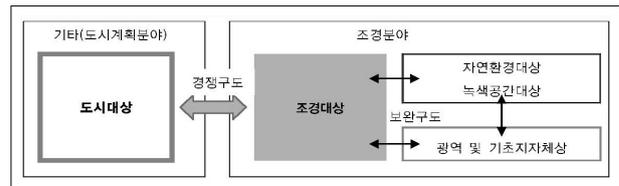


그림 1. 조경대상의 성격과 관련시상제도 내 포지셔닝

표 2. 건설분야 내 공공적 시상제도의 메커니즘

시상주체	시상내용과 분야		객체 및 시상의 성격	대표사례
	시상영역	주요 관심분야 및 공정		
공공부문	-	시행의 전(前) 단계 (기획, 계획, 설계)	-공공부문에 대한 현상설계(competition)	본 연구주제 범위 이외의 대상임
	만들기	시행단계 (시공, 감리)	-공공 및 민간부문의 관리자, 건설사 등 -우수환경조성사례라는 하드웨어에 대한 시상성격	조경분야의 자연환경대상과 녹색대상, 건축분야의 건축대상 등
	가꾸기	시행 이후 단계 (유지, 관리, 평가)	-공공 및 민간부문의 단체 -행위의 장려와 같은 사회적 측면이 강화된 시상성격	조경분야 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다수 사례
	종합	시행의 모든 과정과 이를 가능케 한 주체에 대한 관심	-종합화된 시상유형으로 비교적 큰 규모에 적용	조경분야의 조경대상, 도시계획분야의 도시대상

있는 도시조성을 유도하고, 시민들을 위한 도시행정 및 건전한 도시경영정책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도시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상으로, 2007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도시대상'으로의 변화를 거쳐 2008년부터 '도시대상'으로 명칭을 통일하여 시행하고 있다(http://www.city.go.kr/jsp/cmsView/board.jsp?menuCode=101010031007).

이렇듯 조경대상은 조경분야 내부에서 전국범위의 시상제도인 자연환경대상 및 녹색공간대상 등과, 그리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시상제도와 역할을 분담하면서 관련학문인 도시계획의 도시대상과 경쟁하는 측면을 드러낸다. 이러한 점에서 조경대상이 위치해 있는 위상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으며, 건설과 관련된 공공적 시상제도의 메커니즘은 표 2와 같이 정리되는 바, 이들은 조경대상의 정체성 해석에 기본여건으로 기능한다.

IV. 조경대상의 정체성 분석

1. 내적 자기인식으로서의 동일성

조경대상의 정체성 국면 중 지속성의 고찰을 위해 조경대상의 태동과 이후의 변모과정을 추적하면 표 3과 같다. 조경대상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형성하며, 생태계의 보존·유지로 지속가능성이 높은 국토공간을 마련하며, 21세기 조경 패러다임과 지방행정의 역할을 조명하고, 자치단체의 조경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높여 아름다운 국토환경을 가꾸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목표"((사)한국조경학회, 2001)에서 시작되었다. 이렇듯 태동 당시의 목표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조경대상의 사회성을 잘 보여준다. 시상년도를 기준으로 2001년 시작된 조경대상은 격년제 운영을 근간으로 한 까닭에 현재까지 5회의 실적을 보인다. 시상의 부문과 방식, 세부기준은 1, 2회가 동일하게 지속되었다. 즉, 조경정책·조경사업·친환경조

경사업의 세 방향으로 구분해 각 부문별 우수상으로서 행자부·건교부·환경부 장관상을 각각 수여하며, 종합점수로서 조경대상(대통령상)과 조경최우수상(국무총리상), 기타 특별상과 장려상을 선정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후 격년제 운영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1년을 넘겨 2006년에 시행된 3회의 시상은 다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즉, 그동안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정부투자기관에 이르기까지 외연을 넓혔으며, 시상 부문에서도 문화관광부장관상으로서 역사·문화환경부문을 신설했으나, 시상방식과 세부기준은 창안 당시와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었다. 이후 2008년도 4회에서도 시상부문의 확대와 명칭변경이 이루어졌다. 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이 경관조성부문으로 신설되면서 정부조직의 변화에 따라 조경정책부문(행정안전부장관상), 공원녹지부문(국토해양부장관상), 생태조경부문(환경부장관상), 문화관광부문(문화체육부장관상) 등 5개 부문의 시상제도로 확대·개편되었다. 한편, 최근인 2010년 시행의 제5회에서는 전차에 신설되었던 경관조성부문(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이 제외되었으며, 시상대상이 지자체와 공기업을 넘어 민간건설사로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시상부문과 내용변화에 따라 조경대상의 배점기준 등도 변화되어 왔다. 즉, 표 4에서 보듯이 3회까지의 평가는 정량적 측면에서 복잡하고도 엄밀한 기준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표 5에 나타나듯 4회 때부터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부문평가와 전 부문 종합평가방식으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표 6을 통해 보듯이 최근까지 이어졌다.

상기한 내용은 조경대상의 내적 자기인식으로서의 정체성 중 지속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즉, 비록 조경대상과 성격을 달리하지만 조경분야 내 전국범위의 시상제도로서, 동일년도에 출범한 (사)환경계획조성협회의 자연환경대상과 비교할 때, 전체시상실적이 그 절반인 5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3회 당시 제 때에 시행되지 못하였던 파행상황은 조경분야의 대표시상제도로서의 권위성을 저해하는 약점을 이룬다. 또한 공공영역을 대상으로 시행해오던 제도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한

표 3. 조경대상의 변화과정 개괄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시상년도	2001	2003	2006	2008	2010
대상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시행	좌동	정부투자기관을 추가적으로 포함	좌동	민간 건설사를 추가적으로 포함
부문	〈3개 부문〉 -조경정책(행자부), -조경사업(건교부), -친환경조경사업(환경부)	좌동	〈4개 부문〉 -역사문화환경부문(문화부장관상) 신설	〈5개 부문〉 -조경정책(행안부), -공원녹지(국토해양부), -생태조경(환경부), -문화관광(문체부), -경관조성(농림수산식품부)	〈4개 부문〉 -경관조성부문(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제외
응모 수	18개소	14개소	지자체 15개소 정부투자기관 5개소	13개 단체	30여개 단체 (민간부문 포함)
기타			격년제 시행기준의 파행 운영	정부조직 및 명칭의 변화	

최근의 제도개편은 사회성에 방점을 두며 시작한 태동 당시의 가치기준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경대상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대한 변화로 해석된다.

한편, 응모현황을 통해 조경분야 내 최고권위의 시상제도로서의 동일화 측면을 비견하면 다음과 같은 취약점이 발견된다. 즉, 민간영역을 포함하기 이전까지 20개 이하의 응모현황이 반

복된 바, 이는 500여 개소를 훨씬 상회하는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수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한 실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⁶⁾. 또한 공공영역에 집중하던 조경대상의 정체성을 훼손하며 민간영역으로까지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도가 크게 증대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상황은 조경분야 내 최고권위의 시상제도로서의 성격에 상응하지 못하는 측면을 보여준다⁷⁾.

표 4. 1~3회(2001, 2003, 2006년) 조경대상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부분은 배점내용

구분	조경정책부문(100)		조경사업부문(100)		친환경조경사업부문(100)		역사·문화/관광환경 조성사업부문(80)			
1회 (2001) 및 2회 (2003)	공원 녹지 예산 계획 (35)	공원녹지 사업비의 증감(10)	공원 녹지 조성 사례 (50)	공원녹지 조성면적(20)	경관 계획 (30)	경관 개선(10)	(해당 없음)			
		시설공원 면적율의 증감(10)		공원녹지 조성내용(20)		경관 보존(10)				
		총예산 대비 조경관련 예산 집행비율(10)		자투리땅, 공개공지 등(10)		경관기본계획 및 관련조계 제정·운영(10)				
		신규 도시개발지의 공원녹지율의 적용(5)	도시 가로의 정비 사례 (30)	자전거도로의 조성(10)	인공지반녹화(옥상, 벽면 등)(10)					
	특별 공원녹지 추진사업의 내용(15)	쾌적한 보행환경조성(10)		자연형 하천 조성(10)						
	공원 녹지 정책 사례 (25)	문화·역사공간의 조성사례(10)	생활 환경의 개선 사례 (20)	고가구조물 등을 포함한 도시구조물의 환경개선(10)	도시 생태계 개선 사업 (50)	생태통로의 조성(10)				
		정책 추진의 방법(20)		담장제거, 주차장 정비, 투수성 포장 정비(10)		생태공원의 조성(10)				
		지방 의제21 추진 실적(20)		건물주변 조경(10)		생태 학습의 프로그램 운영(20)		생태학습공간의 조성(10)		
	3회 (2006)	공원 녹지 예산 계획 (45)	공원녹지 사업비의 증감(15)	공원 녹지 조성 사례 (50)	공원·녹지 조성면적(20)	경관 계획 및 설계 (30)		경관계획 및 설계(10)	역사·문화 환경조성 계획(정책) (20)	역사·문화예술 공간의 면적을 증감(10)
			공원·녹지율의 증감(15)		공원·녹지 조성내용(20)			경관기본계획 및 설계관련 예산집행(10)		
총예산 대비 조경관련 예산 집행비율(15)			테마공원 조성사례(10)		생태환경계획 및 설계관련 예산의 집행(10)		역사·문화/ 관광환경 조성사업 (35)	역사문화환경 보존 및 조성(10)		
공원 녹지 정책의 시행 (50)		주제별 공원·녹지 추진사업의 내용(20)	교량 등 도시구조물 경관계획(10)	도시 생태계 개선 사업 (50)	사업지구의 생태면적율(10)	조각공원등 문화예술환경 조성(10)				
		기준 및 지침 등의 합리적 운영 및 개선사례(15)	가로환경 디자인 계획(가로시설물, 쉼터 등)(10)		물 순환시스템의 도입정도(저류지, 자연형하천, 습지 등)(10)					
		전문분야 기술향상 노력 및 연구성과(15)	야간경관·조명계획(10)		생태네트워크 조성(생태공원 및 비오톱, 생태통로, 녹도 등)(10)				생활체육 문화환경의 조성(15)	
정책 추진의 방법 (25)		담당부서의 전문성(20)	생활 환경의 개선 사례(20)	자전거도로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10)	생태 학습의 프로그램 운영(20)	지역 역사·문화에의 기여(25)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지역 역사문화공간 지원사업(10)			
		전문가 및 자문기구의 운영(5)	공원·녹지 내 주민편익시설의 조성(10)	공원·녹지 내 주민편익시설의 조성(10)				생태학습공간의 운영(10)	향토사적유물 보존노력 및 실적(15)	

자료: (사)한국조경학회, 2001.9.6; (사)한국조경학회, 2003.9.4; (사)한국조경학회, 2006.5.2; 필자 제작성.

표 5. 4회(2008년) 조경대상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부분은 배점내용

조경정책부문(80) -A4 50매 내외	그 외 사업부문 (80)	
사업비의 증감(5)/ 면적율의 증감(5)/ 예산 대비 예산 집행비율(5)/ 신규 도시개발지의 공원·녹지율의 적용(5)/ 조성사례(10)/ 담당부서의 전문성(15)/ 자문기구의 운영(5)/ 전문가의 참여(10)/ 장기 정책의 시정방침(10)/ 주민참여(관련 단체 포함)(10)	계획(40) 〈관넬 및 보고서 평가〉	개념 및 주제/ 자연·인문·생태환경을 배려한 시설도입 및 배치의 적정성/ 지역의 Identity 제고를 위한 특화방안 수립/ 주변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시설배치/ 대상지역의 위상정립 및 상징성 부여/ 가치증대를 위한 계획의 합리성/ 랜드마크 역할 수행을 위한 통합디자인의 우수성
	시공(20) 〈현장실사〉	계획안의 실현성/ 도입시설의 활용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사업비를 고려한 적절한 계획수립
	이용(20) 〈현장실사〉	이용빈도/ 이용자만족도/ 유지관리실태

자료: (사)한국조경학회, 2008.10.20: 필자 제작성

표 6. 5회(2010년) 조경대상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부분은 배점내용

분야	영역	공공부문	민간부문
조경 정책 부문 (100)		사업비의 증감(10)/ 면적율의 증감(10)/ 총예산 대비 예산집행비율(10)/ 조경관련정책(10)/ 조성사례(25)/ 담당부서의 전문성(15)/ 전문가의 참여(10)/ 주민참여(관련단체 포함)(10)	총예산 대비 예산집행비율(10)/ 조성사례(30)/ 사회기여도 및 평판(30)/ 담당부서의 전문성(30)
공원 녹지 부문 (100)	계획·설계 판넬평가(60)	개념 및 주제/ 자연·인문·생태환경 등을 고려한 시설도입 및 배치 적정성/ 부지의 정체성과 상징적 이미지 고양/ 동선체계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타당성/ 계획의 합리성과 과학적 타당성/ 설계의 창의성과 예술적 가치/ 통합적인 계획 및 설계의 우수성/ 계획 및 설계의 선도적 실험성	주민참여 여부/ 단지 내 조경녹지 확보율(추가)
	시공 -현장실사(20) 민간: 20%	계획·설계안의 실현 상태/ 전반적인 시공품질 및 완성도/ 첨단기술 및 선도 기술의 적용 여부/ 사업비의 타당성	(좌동)
	관리 -현장실사(20) 민간 10%	이용자수 및 빈도/ 이용자 참여 실태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 실태	(좌동) 기부채납한 공원의 경우 민간기업에서의 사후관리 여부(추가)
생태 조경 부문 (100)	계획·설계 판넬평가(60)	개념 및 주제/ 자연·인문·생태환경 등을 고려한 시설도입 및 배치 적정성/ 주변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생태복원 효과/ 생태학습 프로그램의 도입 가능성/ 동선체계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타당성/ 통합적인 계획 및 설계의 우수성/ 계획 및 설계의 선도적 실험성	(좌동)
	시공 -현장실사(20)	계획·설계안의 실현 상태/ 전반적인 시공품질 및 완성도/ 자연친화적인 공법 및 재료의 사용/ 사업비의 타당성	(좌동)
	관리 -현장실사(20)	식물·동물 생태계의 복원 효과/ 자연친화적 관리 가능여부/ 이용자 참여 실태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 실태	(좌동)
경관 조성 부문 (100)	계획·설계 판넬평가(60)	개념 및 주제/ 자연·인문환경·경관 등을 고려한 시설도입 및 배치 적정성/ 부지의 정체성과 상징적 이미지 고양/ 동선체계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타당성/ 계획의 합리성과 과학적 타당성/ 현안문제의 해결 효과/ 통합적인 계획 및 설계의 우수성/ 공공디자인의 조형성	(좌동)
	관리 -현장실사(20)	계획·설계안의 실현 상태/ 전반적인 시공품질 및 완성도/ 첨단기술 및 선도기술의 적용 여부/ 사업비의 타당성	(좌동)
	시공 -현장실사(20)	경관조성사업에 따른 개선 효과/ 이용자수 및 빈도/ 이용자 참여 실태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 실태	(좌동)
문화 관광 부문 (100)	계획·설계 판넬평가(60)	개념 및 주제/ 자연·인문·생태환경 등을 고려한 시설도입 및 배치 적정성/ 부지의 역사 및 정체성의 반영/ 주변지역의 환경 및 문화적 특성의 반영/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보전 및 활용/ 동선체계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타당성/ 관광증진 및 관광소득 증대 효과/ 계획의 합리성과 과학적 타당성	(좌동)
	시공 -현장실사(20)	계획·설계안의 실현 상태/ 전반적인 시공품질 및 완성도/ 주변 환경과 문화와의 정합성/ 사업비의 타당성	(좌동)
	관리 -현장실사(20)	사계절 이용자수/ 이용자 참여 실태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 실태	(좌동)

자료: (사)한국조경학회, 2010.10.18: 필자 제작성

2. 외적·상관적 인식으로서의 차이성

앞선 논의를 통해 조경대상과 비견되는 외부의 시상제도로서, 도시계획분야의 도시대상을 거론한 바 있다. 이에 조경대상의 정체성 중 외적·상관적 인식으로서의 개별성을 도시대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표 7에서 보이듯 2011년 시행 예정인 11회 도시대상은 기본영역, 활력도시, 문화도시, 녹색도시, 녹색교통도시, 안전·건강도시, 교육·과학도시, 선도사례, 도시계획 등 총 9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경대상의 세부내용과 부분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다. 즉, 도시대상의 기본영역과 도시계획부문은 조경대상의 조경정책부문(행정안전부장관상), 문화도시부문은 조경대상의 문화관광부문(문화체육부장관상), 녹색도시부문은 조경대상의 공원녹지부문(국토해양부장관상) 및 생태조경부문(환경부장관상)과 피할 수 없는 경쟁구도를 이룬다. 일례로 역대 조경대상의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과 표 7에서 보이는 도시대상 중 특히 녹색도시부문지표는 매우 유사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표 8을 통해 알 수 있듯 조경대상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은 도시대상의 누적량은 시상 신뢰도를 제고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2011 응모요령에서도 나타났듯 도시대상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LIS) 확산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한옥도시건축사업 등 지자체 지원사업 선정 시 도시대상 수상도시 및 응모도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참여도를 증대시키는 강점을 보인다. 이렇듯 조경대상과 중복되는 영역에 위치한 도시대상의 여건을 고려해 조경대상의 장래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3. 종합

표 7. 도시대상 중 녹색도시부문의 내용(11회: 2011년)과 조경대상과의 관련성

평가항목	세부내용 및 배점기준	조경대상과의 관련성
41 녹색도시 정책운영(36점)	녹색도시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지원 실적(8점)	조경대상 중 조경정책부문과 경쟁관계 형성
	기후변화 대응 협력체계 실적(8점)	
	저탄소 녹색도시 추진실적(4점)	
	저탄소 녹색도시 정책 및 계획수립 노력(8점)	
	저탄소 녹색도시 실행을 위한 노력(8점)	
42 녹지·생태(20점)	1,000인당 공원·녹지 면적 변화(10점)	조경대상 중 공원녹지부문 및 생태조경부문과 경쟁관계 형성
	도시생태공원 및 녹화실적(10점)	
43 경관 친수(20점)	경관개선 실적(10점)	조경대상 중 경관조성부문과 경쟁관계 형성
	친수공간정비 실적(10점)	
44 자원절약 및 오염예방(24점)	자원절약 실적(6점)	조경대상과 비교적 무관함
	에너지절약 실적(10점)	
	수질 및 대기질 오염원 관리 실적(8점)	

자료: http://www.city.go.kr/jsp/cmsView/board.jsp?bf=0&board_code=10000000381&seq=23224&boardCmd=view&menuCode=101010031005&c_board_code=100000000326&cBoardCmd=cview&cSeq=1000 필자 제작성

표 8. 조경대상과 도시대상의 시상수 누적비교

구분	조경대상	도시대상
대통령상	5개	10개
국무총리상	10개	16개
부문별 우수상	<총 36개 기관> · 조경정책-9개 · 조경사업-6개 · 공원녹지-4개 · 친환경조경사업-6개 · 생태조경-4개 · 역사문화환경조성사업-2개 · 문화관광-4개 · 경관조성-1개	<총 65개 기관> · 주민참여-7개 · 문화-10개 · 자족-1개 · 정보화-7개 · 녹색교통-10개 · 도시관리-6개 · 친환경경-7개 · 활력도시-3개 · 안전건강도시-3개 · 환경도시-3개 · 교육과학도시-3개 · 선도사례도시(제생)-2개 · 모범사례-2개
특별상	<총 27개 기관> · 종합부문-15개 · 조경정책부문-2개 · 조경사업부문-3개 · 친환경조경사업부문-2개 · 장려상(조경학회장상)-5개	<총 50개 기관> · 학회장상-12개 · 우수상-6개 · 특별상(기관장상)-21개 · 주관기관상-7개 · 중앙일보 사장상-4개
총계	78개	141개

이상 조경대상의 정체성을 분야 내·외의 상황과 관련하여 살펴 본 고찰결과는 표 9와 같이 종합된다. 즉, 조경대상의 정체성 중 지속성의 관점에서 다수의 약점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물론,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민간건설사를 포함하는 방안으로 시상분야를 확대한 최근의 변화가 다소의 장점을 유발할 수도 있겠으나, 공공부문의 포상을 통해 조경분야의 사회성을 강화하려고 했던 태동 당시의 가치는 희석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발견되는 것이다. 아울러 격년제 운용에 의해 같은 해에 전국범위로 동일하게 시작된 분야 내부의 시상제도에

표 9. 조경대상에 대한 정체성 종합

정체성의 세부개념		조경대상에 대한 정체성 분석결과	
		강점/ 기회요인	약점/ 취약요인
내적 자기인식으로서의 동일성 (Sameness)	지속성	-10년간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음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했던 태동 당시의 가치가 최근 부분적으로 퇴색되고 있음 -격년제 시행에 따라 시행경험이 5회에 불과하여 일천함 -3회 시행 당시 부분적인 차질이 있었음
	동일화	-대통령상을 보유한 조경분야 내 최고권위의 시상제도로서 인정	-저조한 참여기관 및 단체 수
타자와의 상관적 인식으로서의 차이성 (Oneness)	특이성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시상하는 조경분야의 유일한 상으로서의 가치를 보유	-도시대상의 특정영역과 경쟁구도를 형성
	수월성	-도시대상: 단일분야(국토해양부) 9개 부문 -조경대상: 4개 분야(행안부, 국해부, 환경부, 문광부) 4개 부문 -조경대상이 다양한 행정부를 포괄하는 우월성을 보임	-11회를 지속한 도시대상에 비해 지명도 저하 -도시대상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에 비해 경쟁력 강화요소 취약

비해 절반 수준의 경험을 보유하고, 부분적인 차질도 겪어왔던 점은 조경대상의 정체성을 지속성 측면에서 저해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동일화의 관점에서 파악했을 때 조경대상은 대통령상을 보유한 분야 내 최고권위의 시상제도의 권위성에 비해 참여도 측면이 크게 미흡하여 그 가치가 반감되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조경대상의 정체성 중 개별성 관점에서는 조경분야 내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시상하는 유일한 상으로서의 분야 내 고유요소에 근거한 우월성을 형성하나, 도시계획분야 내 도시대상의 특정부문 및 영역에서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점 역시 발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경대상과 도시대상을 수월성 측면에서 견줄 경우, 11회를 지속하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있는 도시대상에 비해 전체적으로 지명도와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약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대상의 세부부문이 모두 국토해양부장관상이라는 단일분야의 상으로, 9개 영역을 포괄하는 점에 비해 조경대상은 4개 분야에 집중하면서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부 등 다양한 행정영역을 포괄하는, 이른바 공동요소를 비교한 수월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수월성으로서의 정체성의 측면은 조경대상의 잠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종합할 때, 조경대상의 정체성은 분야 내·외부의 시상제도와 관련되어 강점으로서의 기회요인과 약점으로서의 취약요인이 복합되어 있다. 이렇듯 다양하게 복합되어 있는 정체성으로서의 특성에 대해 조경분야 내·외부 관계자의 폭 넓은 참여가 뒷받침된 다양한 논의과정을 통해 종합적인 발전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이상에서 조경대상의 정체성을 분야 내외의 측면에서 점검하였다. 조경대상과 관련된 정체성의 측면 중 지속성이라는 세

부의 관점에서는 길지 않은 연원을 보유하고하면서도 부분적인 파행을 겪은 점이 주목된다. 또한 동질화라는 세부 관점에 있어서는 시상제도의 본질인 대 사회성과 공공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과, 조경분야 내 가장 권위 높은 시상제도의 측면과 비교할 때 참여도 역시 현저히 저하되는 점과 같은 취약한 측면들이 드러난다. 아울러 조경대상은 인접한 도시계획분야의 도시대상과 경쟁구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역시 발견된다. 이에 조경대상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시상하는 조경분야의 유일한 상으로서의 공공성과 사회성이라는 내적 가치를 견지하면서 유사시상제도의 공동요소와 비교한 수월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국토해양부라는 소관부처 업무분야에 국한된 도시대상의 성격과 비교할 때, 보다 전문적이며 다양한 행정영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다양한 영역과 세부분야를 포괄하는 학문과 실무분야로서의 조경분야의 특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안과도 밀접한 측면으로서, 향후 조경운동전개의 지향점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 더해 조경대상의 보다 원활한 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코자 한다. 시상제도는 많은 호응을 바탕으로 하여 성장할 것인 바, 그 기반조건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처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조경대상이라는 명칭과 부합되는 참여도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예로서 관련 사업에의 참여 시 가산점 부여, 세금 및 국고의 보조와 지원, 환경사회단체와 연계한 인증제의 운영 등과 같은 실질적 동기를 부여하는 인센티브제도를 확보하여야 조경대상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적 운용의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더해 응모절차와 선정방법을 가급적 단순화하며, 민주적이고도 간편한 선정방법을 모색하고, 언론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전략 등도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듯 정체성의 세부특성측면에서 파악되는 조경대상의 여건은 다양한 문제의식과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조경대상의 정체성은 조경이라는 분야의 정체성과 분리할 수 없는 내용인 까닭에,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논의를 본격적으로 발전시키

기 위한 선행조치로서 산학연을 아우르는 조경분야 전반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민주적인 공론화과정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연구의 말미에서 강조하고자 한다.

- 주 1. 국내 조경분야의 역사는 대학교에 조경학과가 개설된 1973년부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이 기준에 의하면 다가올 2013년이 40주년이 되는 셈이다.
- 주 2. 조경분야의 연구에 이어 정체성 개념은 도시이미지의 분석수단으로 홍형순과 장태현(1998), 홍윤순 등(2009)에 의해, 도시공원의 평가 또는 시설도입의 방안으로 오정학 등(1999), 홍성권 등(2007) 등에 의해, 마을환경의 인식파악을 위한 수단으로 한성미 등(2009)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되어왔다.
- 주 3. 이러한 내용은 산업디자인분야의 성과를 검증하는 차원과도 궤를 같이 한다. 즉, 정경원(2003)은 굿디자인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조형성, 합목적성, 경제성, 제작성, 사용성, 만족성, 적합성, 환경친화성의 8가지 기준을 언급하였다. 이들 기준 중 조형성, 합목적성, 경제성, 제작성은 주로 디자인의 물리적인 특성의 형성을 끼치는 일차적인 요인으로, 주로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에서 특히 중요시 된다고 하였다. 반면, 사용성, 적합성, 만족성, 환경친화성은 디자인과 사용자, 시장, 사회, 환경 등과의 상호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차적인 요소이며 디자인의 후기 단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 주 4. 서울시 환경과와 조경과가 주관·시행하는 '서울사랑 시민상(환경부문)'은 쾌적한 환경조성과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시민·단체·기업체 등의 수범사례를 발굴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추천부분은 환경보전, 환경기술, 자원재활용, 푸른마을, 조경생태 등 5개 분야로, 1996년부터 2010년 현재 19회에 걸쳐 가꾸기 분야를 중심으로 시상해 왔다. 대구광역시의 조경상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과 푸른 대구가꾸기 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민간분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해 기관되어 2010년 현재 16회에 이르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조경기술의 질적 향상은 물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공간 확충에 기여하고 녹색 건설성에 대한 관심도 증진을 위하여 조경상과 푸른 학교상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으며, 2010년을 기준으로 각각 제7회와 제4회를 맞고 있다. 대전시 조경상은 도시숲 조경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 모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우수조경작품에 대해 시행되다가 2004년, 2005년에 제도 자체의 시행이 유보되는 국질을 겪기도 하였다. 2009년도에 다시 제1회 대전광역시 우수조경상으로 부활하였으며, 공동주택, 업무시설, 기타 분야로 구분하여 시상하고 있다. 경기녹지재단에 의해 뒤늦게 시작된 경기도의 아름다운 정원상은 2011년 2회를 시상하였다. 한편 안산시, 안동시 등의 사례를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시상제도의 내용을 가름해 볼 수 있다. 안산시의 경우 푸른마을상, 푸른학교상, 조경상, 시화장미상 등으로 성격을 세분하여 단체(학교, 마을), 개인, 기업 등을 평가대상으로 하여 왔으며, 특히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9조)에 의해 시공된 환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안동시의 경우 아름다운 조경상 한 분야만이 운영되다가 현재는 폐지되어 있다.
- 주 5. 이 상은 지난 1년 동안 도시의 공간의 질과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울여 온 성과를 그 전년도 성과와 비교하여 그 증가 수준을 평가하여 궁극적으로는 도시공간에 대한 사회·경제, 공간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성격을 갖는다.
- 주 6. 우리나라는 1995년 8월 현재 15개의 광역자치단체(1특별시·5광역시·9도)와 230개의 기초자치단체(67시·98군·65자치구)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20j0631a>), 공공기관은 2011년 현재 시장형(8개), 준시장형(13개), 기관관리형(16개), 위탁집행형(63개), 기타 공공기관(185개) 등 총 285개에 달한다(<http://melodies.tistory.com/77>).
- 주 7. 참여방식을 간소화하였어도 조경대상의 응모현황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4회 시행의 경과보고에 의하면 신청서를 제출

한 기관은 30여 개소에 달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13개 단체만이 응모한 결과로 이어졌다((사)한국조경학회, 2008.10.20). 이후 2010년 5회에는 참가 독려를 위한 조치로서 '추진예산의 예년대비 33% 증액, 준비조직의 전국단위 확대, 참여 제출서류의 간소화, 민간수요로의 확대 실시, 조기준비체계 확립 등을 시행'((사)한국조경학회 사업백서 2009-2010, pp. 204-207)한 결과 44개 단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30여개만이 응모한 결과를 보여준다((사)한국조경학회, 2010.10.18). 과거에 비해 응모현황이 개선되어 보이는 이러한 결과 역시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특히 민간건설사까지 포함된 내용임을 감안하면, 매우 빈곤한 측면을 보여준다.

인용문헌

1. (사)한국조경사회(2010.10.26) 제1회 녹색공간대상 공모전 개최 안내.
2. (사)한국조경학회(2001.7) 제1회 조경대상 자료집(시행방안/평가내용/평가지표).
3. (사)한국조경학회(2008.10.20) 제 5회 조경의 날 기념식 및 제 4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시상식 팸플렛 자료.
4. (사)한국조경학회(2010) 조경사업백서 2009-2010.
5. (사)한국조경학회(2010.10.18) 2010 제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시상식 경과보고 자료.
6. (사)한국조경학회(2010.10.18) 제 7회 조경의 날 기념식 및 제 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시상식 팸플렛 자료.
7. (사)환경계획조성협회(2010) 환경계획조성협회 10주년 기념집.
8. (사)환경계획조성협회(2011) 자연환경대상 공모전 응모요령.
9. (재)경기녹지재단(2006.4) 아름다운 정원대상 심사기준연구 최종보고서.
10. 계기석, 강신걸, 김규원, 김보성, 문원식, 진영호(2001) 도시정체성과 도시발전, 도시정보 229: 3-15.
11. 오정학, 고동환 김유일(1999) 도시공원의 지역적 정체성 평가와 유용성-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27(1): 79-89.
12. 정경원(2003) 디자인경영. 안그라픽스.
13. 한성미, 임승민, 엄봉훈(2009) 서래마을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프랑스 주민과 방문자의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37(4): 32-41.
14. 홍성권, 이민우, 이상민, 안명준(2007) 도시공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입시설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5(5): 29-36.
15. 홍윤순(2009. 12)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 보행자전용구역의 환경특성: 수경 및 포장에 의한 역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38(2): 64-74.
16. 홍형순, 장태현(1998) 도시경관 정체성 파악을 위한 역사적 도시기술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6(3): 52-65.
17. 황기원(1995) 도시의 정체성과 쾌적성. 지방화시대의 도시정체성 회복과 조경의 과제를 위한 세미나 자료집. (사)한국조경학회, pp. 1-13.
18. 황기원(2009) 도시락 맛보기. 서울: 다빈치.
19. Prohansky, H. M., A. K. Fabian and R. Kaminoff(1983) Place-identity: Physical world socialization of self.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 57-83.
20. Relph, E.(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Ltd. p. 45.
21.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20j0631a>.
22. <http://melodies.tistory.com/77>.
23. http://www.city.go.kr/jsp/cmsView/board.jsp?bf=0&board_code=10000000381&seq=23224&boardCmd=view&menuCode=101010031005&c_board_code=10000000326&cBoardCmd=cview&cSeq=1000.
24. <http://www.city.go.kr/jsp/cmsView/board.jsp?menuCode=101010031007>.

원 고 접 수 일: 2011년 8월 2일
 심 사 일: 2011년 8월 28일(1차)
 2011년 9월 16일(2차)
 개 재 확 정 일: 2011년 9월 26일
 4 인 의 명 심 사 필